

2003學年度

碩士學位請求論文

J. Calvin과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W. Gouge의

주일관을 통한 주일성수의 당위성 고찰

A Study on the Obligatory Observance  
of the Christian Sabbath in John Calvin and  
Westminster Divine William Gouge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課 牧會學專攻

朴 淳 姬

J. Calvin과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W. Gouge의  
주일관을 통한 주일성수의 당위성 고찰

A Study on the Obligatory Observance  
of the Christian Sabbath in John Calvin and  
Westminster Divine William Gouge

指導 김 영 규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6월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課 牧會學專攻

朴 淳 姬

이 論文을 朴淳姬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인정함.

주심 이 은성 Sem  
부심 김 소민 Min  
위원 이 은성 Sem  
위원 김 소민 Min

安養大學校神學大學院

2004년 6월

## 감 사 의 글

한편의 논문을 완성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주제를 정하는 데서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위로해주시고 힘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자료들을 접하면서 신학적 무지와 언어영역의 부족을 절감하면서 끊임없이 진리탐구를 희구하게 됩니다.

그동안 M. Div 3년 과정을 지도해주신 모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3년 동안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본 논문을 지도해주신 김영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많은 도서를 택배로 보내주신 백성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17세기 자료들을 구해주신 김교훈 전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선배님들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과 사랑만큼 좋은 열매를 남기지 못하여 못내 아쉽고 죄스럽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김승천 목사님과 류진숙 언니, 또 섬기고 있는 보배교회 이삼조 목사님과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늘 힘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2004년 6월

박 순 희

# 목 차

I. 서 론 .....	1
A. 문제 제기 .....	1
B. 연구 목적 .....	2
C. 연구 방법과 진행 .....	2
II. J. Calvin의 주일관 .....	4
A. 칼빈의 율법 이해 .....	4
B. 기독교 강요 .....	7
C. 제네바 요리문답 .....	11
D. 칼빈의 주석에 근거한 주일관 .....	13
1. 거룩한 휴식 .....	14
2. 안식일 준수 .....	15
3. 복음서에 나타난 안식일 논쟁 .....	17
4. 영적인 안식과 그리스도인의 주일성수 .....	20
III.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W. Gouge의 주일관 .....	25
A.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W. Gouge(1578-1653)에 대한 이해 ..	25
B. "The Sabbath Sanctificaton"에서 살펴본 주일성수 .....	27
1. 칼빈과 비교한 안식일의 도덕성의 근거 .....	27

2.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들 .....	29
3. 주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증거 .....	32
a. 신적 권위 .....	32
b. 그리스도 교회의 지속적인 관습 .....	34
c. 그리스도의 부활 .....	34
d. 제 칠일을 요구하는 율법의 본질 .....	35
4.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견들 .....	36
5.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동기들 .....	38
C. 청교도의 주일성수 개념 .....	42
1. 청교도의 주일관 .....	42
2. 청교도의 주일성수에 대한 실제적 원리 .....	45
<b>IV. 결    론 .....</b>	<b>47</b>
<b>참 고 문 헌 .....</b>	<b>49</b>

# I. 서 론

## A. 문제 제기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의 물결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200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2003년부터는 주 5일 학교의 등교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입법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3년 5월부터 삼성그룹은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었다. 다른 많은 기업에서도 실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주 5일 근무제는 한국 교회에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어떻게 보면 주일에 대한 참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주일성수에 대한 위기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성도들이 주일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왜?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한국 교회의 주일성수를 위협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점점 휴일이 주일로 이어지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면서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일성수에 대한 문제가 확산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주일성수의 당위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칼빈의 주일관은 어떠한지? 17세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인 W. Gouge의 주일관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교회를 향한 주일성수의 당위성을 찾고자 한다.

## B. 연구 목적

주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의 경건을 훈련하며 참 안식을 누리려는 날로써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으로 퇴색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 5일 근무제는 주일성수에 대한 더 심각한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이에 주일성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참다운 의미를 찾아 주일성수의 당위성을 찾고자 한다.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의 고백 선상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영국에서는 그 문제로 인하여 성직에서 쫓겨나가거나 박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다. 이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근거한 칼빈의 주일관과 17세기 당시의 윌리엄 구지의 주일관을 통하여 주일성수의 당위성을 고찰하고,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주일성수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합당한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기독교 강요와 제네바 요리문답, 칼빈의 주석에 근거한 주일관과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윌리엄 구지(William Gouge, 1578-1653)가 쓴 "The Sabbath Sanctification"을 중심으로, 엄밀한(estroictement) 주일성수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고자 한다.

## C. 연구 방법과 진행

본 논문은 주일성수에 관한 여러 논문자료들과 단행본을 참고하여



그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개혁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존 칼빈의 주일관과 17세기 윌리엄 구지를 통하여 주일성수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내용들을 발견하고 주일성수의 당위성을 찾고자 하였다. 존 칼빈의 주일관을 고찰하는 데는 그가 남긴 많은 신학 자료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윌리엄 구지의 주일성수에 대한 당위성을 고찰하는 데는 그리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어서 많은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17세기 당시의 자료들도 부족하다. 그러나 그가 쓴 “The Sabbath Sanctificaton” 이란 책을 통하여 주일성수에 대한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다. “The Sabbath Sanctificaton”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밀하고도 실제적인 주일성수에 대한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 본서는 1997년 안양대학교 학술연구 지원으로 김성봉 교수를 통하여 연구되어졌고, 그 결과의 산실로 2003년 4월에 “안식일을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왔다. 그 도움으로 본 논문을 연구하는 데 많은 유익이 있었음을 밝힌다.

본 논문은 제 I 장 서론에서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방법과 진행과정을 설명한다. 제 II, III 장 본론에서는 먼저 칼빈의 율법 이해를 기초로 기독교 강요와 제네바 요리문답, 칼빈의 주석에 근거한 내용들을 통하여 칼빈의 주일관을 고찰한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윌리엄 구지의 “The Sabbath Sanctificaton”을 중심으로, W. Gouge에 대한 이해와 “The Sabbath Sanctificaton”에서 살펴본 구지의 주일관을 고찰한다. 또한 청교도들의 주일성수에 대한 개념들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주일성수에 대한 당위성을 고찰해 간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근거로 제 IV 장 결론에서는 오늘날 교회가 바른 토대 위에서 엄밀하게 주일성수가 이루어져야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본 논문을 끝맺고자 한다.

## II. J. Calvin의 주일관

### A. 칼빈의 율법 이해

주일성수의 당위성 문제에 있어서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칼빈의 율법의 용도를 먼저 이해하고 칼빈의 주일관을 살펴야 한다. 칼빈의 율법의 용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은 각 사람의 불의를 책망하며 죄를 깨닫게 해준다. 둘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범법자들을 위한 형벌을 설정하며 사망과 심판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무엇이 옳으며 바른 것인가에 의한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형벌의 공포에 의해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sup>1)</sup> 셋째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다스리시는 신자들에게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에 대해 더욱 더 엄숙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그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갖고 있지만(렘 31:33; 히 10:16),<sup>2)</sup> 그들은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할 만큼 마음이 움직인 자

1) 존 칼빈, 『기독교 강요』(1536년 초판 완역) 포드 배틀즈 서론, 양낙홍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pp.102-103.

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히 10:16).

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즉 율법은 신자들에 대한 권면이며 그것은 저주로 신자들의 마음을 구속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권고에 의해 그들이 나태를 떨쳐버리게 하며, 그들의 불완전에 대해 항상 깨어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up>3)</sup>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알리며 거울과 같이 우리의 죄 많음을 밝히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 하도록 한다. 또한 율법은 행악자들과 불신자들을 억제하는데, 율법은 악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며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억제한다. 율법은 또한 신자들을 훈계해서 선행을 하도록 촉구하는데 신자들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도덕적 및 의식적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점에서 중요하다.<sup>4)</sup>

칼빈은 도덕적 율법(십계명)의 설명에서 도덕법이 십계명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십계명에는 의의 완벽한 귀감이 담겨있으므로 “삶이 근거할 하나의 영원 불변한 규칙이다”라고 확인한다.<sup>5)</sup> 칼빈은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었다”고 「기독교 강요(최종판)」 II권 7장에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롬 8:3).

3) 존 칼빈, 「기독교 강요」(1536년 초판 완역), pp.103-104.

4) 존 칼빈, 「기독교 강요」(1559년 최종판), 김종흡 외 3인 공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1), II.vii.1-17. pp.501-524.

5) Ibid., II.viii.5. pp.530-531.

칼빈은 「기독교 강요(최종판)」 제 2권 7장 12, 13항에서 율법의 제 3사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는 율법의 용도 중에 제 3용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율법을 주신 중심적인 목적에 더욱 가까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용도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영혼 속에 사시며 주관하시는 신자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신자들은 이 율법의 혜택을 두 가지 면에서 알게 된다. 즉 신자들이 양모하는 주의 뜻의 성격을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고 확고하게 이해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며 또 하나는 배울 뿐만 아니라 충고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신자는 율법을 자주 명상함으로써 복종하려는 열성을 얻으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며 법법의 미끄러운 길로 들지 않게 된다.<sup>6)</sup>

칼빈은 율법을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규범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결국 율법을 단순히 유대인에게 해당하지 않고 중생된 이후에도 우리들에게 당연한 규범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을 찾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이 갖는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의 3사용(*tertius usus legis*)으로서 어떻게 율법이 우리의 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멜랑히톤에서 시작해서 칼빈이 표명한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다. 또한 율법이 어디에 기초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은 루터와 쾰링거, 초기 루터와 후기 루터의 차이이다. 쾰링거는 율법의 기초를 믿음으로 보았고 칼빈은 율법과 믿음이 통일적인 것으로 보고 이러한 입장은 율법의 제 3사용법을 확고히 한다. 특별히 이러한 것은 하이델베르그 학파의 우르시누스 등에서 공고히 되었다. 칼빈은 율법을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 곧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 율법의 제 3사용법은 사라지지 않고 천국에서 남으며

---

6) Ibid., II.vii.12. p.516.

이러한 명확하고 제시된 규범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단정한다.<sup>7)</sup>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핵심이다.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율법에 제시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의 완벽한 귀감이 담겨 있으므로 “삶이 근거할 하나의 영원 불변한 규칙”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율법 해석의 적용에 있어서는 반듯이 율법의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 B.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실제적인 목적과 변호의 목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적인 목적이라 함은 기독교의 교리를 가능한 한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시키려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6년의 초판 강요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읽혀졌다. 그러나 칼빈은 1539년의 제 2판 강요 서문에서 이러한 목적을 수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8)</sup> 또한 변호의 목적은 1535년 초 프랑스를 피로 물들였던 박해, 칼빈이 시편 주석(1557년) 서문에서 명백히 말한 대로이다. 이 박해는 재세례파와 선동자들에게만 가해졌다고 하여 박해의 정당성을 피하려는 것을

---

7) 김영규, “William Twiss의 안식일 논쟁”에 관한 강의안 중에서,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1997).

8)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 p.31.

알게 되었을 때, 칼빈은 이 책을 변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9)</sup> 기독교 강요의 중요한 판들로는 1536년 초판을 비롯하여 1539년 제2판, 1543, 1559년 최종판들이 있다. 여기서는 기독교강요 초판(1536년)과 1539년, 그리고 1559년 최종판을 중심으로 십계명의 제 4계명을 중심으로 칼빈의 주일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의 사상은 거의 변함없이 최종판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칼빈신학의 정수요, 핵심이라고 불리울 만큼 기독교 강요 초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는 십계명의 해설을 포함한 율법에 대하여 가장 먼저 서술하고 있다. 1539년 판에서는 제 4계명의 해석이 거의 종료되었고, 초판에 나타난 칼빈의 입장에서 조금 확대되어진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십계명 중 제 4계명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아무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sup>10)</sup>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호나 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상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 명상을 실천하라는 것이다.<sup>11)</sup>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에 없는 특수한 고려를 하므

9) Ibid., p.32.

1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완역) 포드 배틀즈 서론, 양낙홍 역, pp.69-82.

로 해석하는 순서도 조금 다를 필요가 있다. 초대 교부들은 이 계명을 예시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다른 상징들과 함께 폐기된 일이, 즉 어느 하루를 외면적으로 지키는 일이 제4계명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은 문제의 절반만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이 해석하며, 이 계명을 준수하는 세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첫째로, 제 칠일의 안식은 하늘 입법자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휴식을 알리시는 방법이었다. 신자들은 자기의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서로 모여 율법을 배우며 의식을 행하며 적어도 그 날은 특히 하나님의 행적을 명상하는 데 바쳐서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밖에 남의 권위 하에 있는 사람들과 종들에게 휴식하는 날을 주셔서, 그들의 노고를 쉬는 때가 있게 하기를 결정하신 것이다.<sup>12)</sup>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의식적인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일정한 날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신비의 떡을 떼며 공중 기도를 드려야 한다(행 2:42). 그리고 하인들과 노동자들의 노고를 쉬게 해야 한다. 주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을 때에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하신 것은 틀림이 없다. 처음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만 봐도 증거가 많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둘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신 5:14-15). 또 출애굽기에서는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숨을 돌리리라”고 한다(출 23:12). 이 두 가지 일이 유대인

11) 이는 기독교 강요 1539년 판에 넷째 계명의 첫 부분으로 삽입한 내용이다.

1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 II.viii.28. pp.558-559.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칼빈은 언급했다. 그러나 흑자는 우리가 날들의 구별을 일체 철폐하고 매일 모이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영적 지혜를 위해서는 매일 얼마만큼 시간을 배정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매일 모일 수 없고, 사랑의 원칙이 그들에게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슨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주신 질서에 복종하지 않을 것인가?<sup>13)</sup>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들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신을 받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가 날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유대교를 초월한다고 대답한다. 바울은 아무도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며, 그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가르친다(골 2:17). 이 계명의 의식적 부분, 즉 제 칠일의 지정만이 폐지된 것이고, 도덕적 부분, 즉 이레 가운데서 하루를 정하는 것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sup>14)</sup> 여기서 칼빈이 이레 가운데 하루를 강조하는 것은 제 칠일과 주일과 관계해서 안식일에 해당된 모든 법적 효력이 주일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살려주는 방식으로써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주일은 우리가 모든 다른 것에 앞서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회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과 성례의 시행을 위해 모이도록 제정된 것이다(갈 4:8-11; 골 3:16).<sup>16)</sup>

1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 II.viii.30-32. pp.560-563.

14) Ibid., II.viii.33-34. pp.563-565.

15) 김영규, “William Twiss의 안식일 논쟁”에 관한 강의안 중에서,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1997).

16)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완역) 포드 배틀즈 서론, 양낙홍 역, pp.83-84.



### C. 제네바 요리문답

칼빈의 '제1차 교리교육서(1537)'는 1536년 11월에서 1537년 1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536년 8월 제네바 종교개혁자 파렐(Guillaume Farel)의 설득으로 종교개혁운동에 가담을 결심한 그는 종교개혁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옛 사상과 습관에 젖어 있는 신도들을 철저히 교육하여 종교개혁의 순수교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함을 인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운동을 추종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몹시도 태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칼빈으로 하여금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 신앙내용을 표현해 놓은 교리 교육서를 서술하게 되었다. 이 문서의 원명은 '제네바 교회가 사용하는 신앙교육 요강 및 신조'(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 dont on use en L'Église de Genève)이다. 이 문서는 제네바 시의 소의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후인 1537년 2월부터 인쇄되어 시중에 유포되기 시작했다.<sup>17)</sup> 내용적으로 관찰해 보면 '기독교 강요(초판)'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교육서의 전체 내용 가운데 율법의 제 4계명을 살펴보면, 칼빈은 제 4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제 칠일의 안식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안식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셨다. 즉 이 날에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날이 있기를 원하셨다. 셋째는 주님께서는 노예들이나 다른 사람의 지배 하에 사는 사람들이 그

---

17) 한인수, 『갈뱅의 요리문답』, (서울 : 도서출판 경건, 1995), pp.12-13.

들의 노고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갖도록 그들에게 휴일이 허용되어지기를 원하셨다.<sup>18)</sup> 따라서 우리가 일평생 안식일을 지킬 목적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계속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님께서 말씀의 청취, 성례의 집행, 공적 기도의 수행을 위해 교회의 합법적인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 밑에 예속된 사람들을 노동을 통해 비인간적으로 억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칼빈은 밝혔다.<sup>19)</sup>

칼빈은 제1차 교리교육서 보다는 요리문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541년 9월에 제네바시 행정부의 간청으로 제네바에 돌아왔다. 이 때 칼빈은 요리문답 교육과 권징 행사를 자신의 목회직 재수락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요리문답서 작성에 손을 댔다. 이 문답서의 원명은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Le Catéchisme de L'Église de Genève)'으로 되어있다. 칼빈은 1545년 불어판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불어권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제네바 요리문답(1541/42)'은 그 형식에 있어서 목사가 묻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대화체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55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1년 동안 매주 일 규모있는 교육이 가능하게끔 편성되어 있어 훨씬 실용적임을 알 수 있다.<sup>20)</sup>

제네바 요리문답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신앙에 관하여, 둘째 부분은 율법, 셋째 부분은 주기도문, 넷째는 성례에 관한 순서로 되어있다. 특히 율법(십계명)의 제 4계명의 질의 응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 칠일을 쉬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 중 셋새

---

18) 한인수, 「갈뱅의 요리문답」, pp.37-38.

19) Ibid., p.39.

20) 한인수, 「갈뱅의 요리문답」, pp.14-15.

동안 일하라고 명령하시는가?(문167)”에 대해서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옛새동안 일하도록 허락을 내리실 때 일곱째 날은 일해서는 안 되는 날로 유보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엔 어떤 일도 하지 말도록 금하신다는 것인가?(문168)”라는 질문에 “이 계명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안식일 날의 외적인 준수는 고대법의 의식들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계명은 종교적 예표들과 함께 폐지되었다.”라고 응답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계명이 구약시대에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의식법인 한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의 성취를 소유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을 통해 십자가에 못박히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롬 6:6)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이 4계명의 내용 중 아직 남아 있는 유효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칭취와 공중기도 그리고 성례를 위한 교회 내에서 제정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 세워진 영적 질서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징은 진리의 본질에까지 몰고 가야하는 유익이 있어야 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 된 이상 우리를 그분의 통치에 내어 맡기기 위해 우리 자신의 사역들을 중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sup>22)</sup>

#### D. 칼빈의 주석에 근거한 주일관

---

21) Ibid., pp.151-152.

22) Ibid., pp.154-155.

## 1. 거룩한 휴식

칼빈은 창 2:3<sup>23)</sup>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 주사”를 주석하는데, 하나님은 이 날을 특별히 제정하셔서 특별한 법으로 그 날을 다른 날들로부터 구별되게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정하신 목적도 나머지 날들 가운데서 한 날을 따로 정하여 특별한 용도로 쓰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이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인간들이 묵상하고 정성을 쏟기를 요구하신다.<sup>24)</sup> 사실 이런 일은 전 생애를 바쳐 행해야 할 임무이며, 인간은 하늘과 땅이라는 웅장한 극장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훈과 공의와 권능과 지혜를 숙고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것을 당연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숙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므로 그것을 막고,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기 위해 매주 일곱째 날을 특별히 택하셨다. 먼저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나서 이 안식에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세대의 모든 사람이 거룩히 여기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일곱째 날을 휴일로 지키도록 명하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른 모든 일에서 벗어나 세상의 창조주에게 쉽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장애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룩한 휴식이다.<sup>25)</sup>

---

2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 2:3).

24) 존 칼빈, 『聖經註釋 1 창세기 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서울 : 성서원, 2003), pp.78-79.

25) 761년도 Amsterdam 판과 Hengstenberg 판에는 이것이 *vocatio*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프랑스어판은 *reste*로, 고대 영역본은 휴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원문이 *vacatio*임은 분명하다. 본문도 이러한 의미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폐지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인간생활의 항구적인 통치에 속한 것과 고대의 비유적 표현에 속한 것과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사실 고대의 비유적 표현은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거나 자신의 기호에 탐닉해서는 안된다. 안식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명령된 것인 만큼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밝히고 있다.<sup>26)</sup>

## 2. 안식일 준수

칼빈은 출애굽기 20:8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석에서 왜 하나님은 제 6일이나 제 10일째가 아니라 제 7일째 되는 모든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라고 묻는다. 이에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6일간에 걸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신 것은 자신의 일의 완전한 탁월성을 명백히 보여 주려는 뜻에서였다고 대답한다.<sup>27)</sup>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본받을 표본으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참된 목표인 지복으로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변덕투성이요, 망각하거나 산만하기 쉬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특별히 감안하여서 한 날을 다른 날로부터 구별하고 그 날만은 모든 지상적인 염려와 일을 쉬도록 명령함으로써 어떠한 일도 그 거룩한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였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하루를 자유롭게 지내는 가운데 좀더 잘 배우고 신앙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26) 존 칼빈, 『聖經註釋 1 창세기 I』, p.80.

27) 존 칼빈, 『聖經註釋 2 출애굽기 I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서울 : 성서원, 2003), pp.409-412.

가질 필요가 있다.<sup>28)</sup>

신명기 5:12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지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안식일의 성결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세심하게 준수할 것과 소홀히 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7일 가운데 6일을 그들에게 허용하고 나머지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못마땅하고 불쾌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만다.<sup>29)</sup> 또한 칼빈은 제 4계명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0:8과 관련하여 출애굽기 23:12; 31:13; 35:1-3, 레위기 19:30; 26:2 등의 주석에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묘안도 허용치 않고 전반적인 상실이 따른다 하더라도 안식일만은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30)</sup>

칼빈은 이사야 58:13-14의 주석에서도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태만한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당하고 악한 행위, 정욕과 악한 생각을 삼가는 참된 자기 부정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 58:13의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는 내용에서, 즐거운 날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안식일 준수와 진지한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없다고 칼빈은 확인했다.<sup>31)</sup>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를 것처럼 강력하게 강조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외적인 의식, 곧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던 나태함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이상의 것을 심중에 두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욕망을

---

28) Ibid., p.413.

29) 존 칼빈, 『聖經註釋 2 출애굽기Ⅱ』, pp.413-414.

30) Ibid., pp.417-421.

31) 존 칼빈, 『聖經註釋 8 이사야Ⅳ』, pp.244-245.

저버리고 죄악스런 성향을 포기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순종을 바칠 것을 명령하셨다. 오늘날 그 의식은 폐지되었지만 그 진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그 까닭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sup>32)</sup>

### 3. 복음서에 나타난 안식일 논쟁

마태복음 12:1-23<sup>33)</sup>의 내용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다. 칼빈은 주석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지적하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악의에 차 있는 정신을 드러내고, 외적이고 사소한 일에 신성한 모든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미신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곡식이삭을 안식일에 따먹은 행위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막 2:23-24, 눅 6:1-2).<sup>34)</sup> 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그러나 맑은 정신으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도 범법이라고 하는 그들의 관념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렇지 못했다. 자기들은 엄청난 미신을 용인하고 있는 반면에 사소한 일에 그토록 꼼꼼한 것은 위선이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이 박하와 회향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계명들은 버리고 있다(마 23:23)고 책망하셨다. 그리고 중대한 사건에는 빠짐없이 관여하고, 의식에 극히 경건한 것이 언제나 위선자들의 태도이다. 하나님께 육적 예배만을 드리려는 자들이 외적 의식을 더욱 엄격하게 지

32) 존 칼빈, 『聖經註釋 8 이사야 IV』, p.245.

33)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마 12:1-2).

34) 존 칼빈, 『聖經註釋 16 공관복음 I』, pp.458-459.

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역시 그런 유에 속한다.<sup>35)</sup>

마가복음 2:24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타인의 밭에서 곡식을 상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한다. 마치 굶주린 자들은 그 굶주림을 채우기에 앞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안식일에 곡식에 손을 대는 것은 비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율법에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대하였다. 안식일의 목적은 백성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며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땅의 모든 사업을 쉬며 성회로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이다. 이 법적 관찰이 그 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율법의 해석은 그 율법을 세우신 분의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신이란 참으로 악의가 있고 무자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야망과 개인적인 증오가 마음속에 뭉쳐 있을 때 위선자들은 실로 오만하고 잔혹하게 행동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이에 칼빈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하였던 것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고도 말한다. 격노한 바리새인들은 악의에 가득차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암암리에 허락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여 비난을 주님께로 돌렸다고 말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sup>36)</sup>

칼빈은 마태복음 12:3-7<sup>37)</sup>과 마가복음 2:27-28<sup>38)</sup>을 통하여 그리스도

---

35) 존 칼빈, 『聖經註釋 16 공관복음 I』, pp.459-460.

36) Ibid., p.460.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마 12:3-7).

38)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 2:27-28).



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비난을 다섯 가지로 논박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다윗의 실례를 내세우면서, 사울의 분노로부터 도망간 다윗이 거룩한 떡을 얻게 되었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 다윗이 받을 책망을 면제해 주었다면 동일한 조건 밑에서 다른 사람도 그가 받을 책망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식들은 경건이 손상되지 않는 한 침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는 제사와 어린이 할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속한 일은 무엇이나 허용된다. 신앙적 의무는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율법이 사람들을 향하여 일을 쉬라고 명할 때 거룩한 일까지 쉴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다.<sup>39)</sup>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의식들을 행하라고 명하였는지를 깊이 생각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세대 사람들의 공통된 과오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의식에 집착하고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호 6:6)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다. 율법에는 제사를 드리도록 엄중히 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이는 외적 의식들은 그 정당한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한 그 중요성을 갖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바라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의식들을 절대적으로 배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와 비교할 때 덜 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고 계실 뿐이다.<sup>40)</sup>

네 번째로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마 12:8, 막 2:28, 눅 6:5)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주인이므로 다른 여러 가지 율법적 의식들까지 통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떠

39) 존 칼빈, 『聖經註釋 16 공관복음 I』, p.461.

40) Ibid., pp.462-463.

나서는 율법이 참혹한 노역(奴役)이며, 주님만이 이 노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양자(養子)의 영을 주시는 분에게로 우리를 해방시킨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므로 안식일이 사람의 멸망을 초래하게 한다면 잘못이라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룩한 일에 분망(being busy)한 것을 보았으며, 여행으로 지치고 시장한 것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곡식 알맹이로 지친 몸의 원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분내고 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의도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므로써 손해를 입도록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영원히 철폐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을 정당하게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다.<sup>41)</sup>

#### 4. 영적인 안식과 그리스도인의 주일성수

칼빈에게서 주일성수를 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관계로서 우리 자신들의 일들을 완전히 버리도록 해야함을 의미한다. 칼빈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제 4계명은 다른 계명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4계명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는데,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이전에 걸쳐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가장 철저히 지켜오면서 고수해 온 의식적 예고(ceremonial foreshadowed)는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의식적으로, 외적으로 준수하는 차원이상의 것이 있다. 즉, 모든 시대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두 가지 요소

---

41) Ibid., p.463.

가 있다. 첫째는 예배를 위한 지정된 날이다. 둘째는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에게 휴식을 주도록 명령된 날이라는 요소이다.<sup>42)</sup>

칼빈은 안식일의 일반적인 해석으로서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이날은 영적인 휴식의 예표적인 그림자로서, 하늘의 율법을 주신 분께서 앞으로 누리게 될 참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라는 것이다. 이 날의 참된 의미는 “영적인 휴식”(spiritual rest)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 칼빈의 주일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칼빈은 이날에 대한 엄격한 준수요청이 주어진 구약 성구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요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휴식”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에서 엄밀한 주일 성수의 강조가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외적 요소는 사라졌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약시대의 한 날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폐지되었지만 안식일의 “내적인 실재(the inward reality)”는 여전히 신약시대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기독교 공동체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내적 실재”란 은혜의 실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두 번째 요소로 안식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모여서 율법을 들으며 제사 의식들을 준수하는 날로 주셨다는 것이다. 적어도 경건하게 이 날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특별히 묵상해야 한다. 안식일에 대한 세 번째 요소는 이 날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도록 지정해 놓으신 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꾼들이 땀으로부터 약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sup>43)</sup>

칼빈이 말하는 휴식과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독교인의 영원한

---

42)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경기 :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pp.211-212.

43) Ibid., pp.212-213.

의무, 즉 칠일 중에서 하루에 대한 “금지”로서의 부정적인 의미에 강조점이 있지 않다. 이 날의 휴식은 억지로 하루를 쉬는 의무가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이 누리는 휴식이요, 영원한 “멈춤” 혹은 “정지”인데, 이를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제 칠일에 안식일 준수를 하는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그의 신명기에 대한 설교에서, 안식일은 영적인 휴식, 구원적인 휴식의 본질적인 표지이므로 이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날은 성화된 사람들을 위한 표시로서 주신 날이다. 따라서 이 날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표시이다. 아무나 이 날을 쉬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다.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안식일은 주님의 진실한 교회만이 이날을 쉬게 하심이자, 세상의 모든 휴식으로부터 구별하시는 표지이다.<sup>44)</sup> 칼빈은 이날의 “예식적” 요소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구속적 안식의 상징이요, 예표로서, 구현으로서 매주 특정한 한 날을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안식일로 상징된 이 구속적인 휴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따라서 외적인 형식의 안식일 준수, 이것이 구속적인 상징의 의미를 지녔던 과거의 개념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다.<sup>45)</sup>

칼빈은 안식일의 두 번째 요소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 날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시대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7일 가운데 한 날을 지정함으로써 제 4계명은 공동의 예배가 가능토록 만들어 준다. 칼빈은 안식일만 반드시 정규적인 예

---

44) John Calvin, *Sermon on Deuteronomy*, tr. Arthur Golding(1583;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p.207.

45) *Institutes*, II.viii.31.

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규칙적인 모임이 있음을 알게 된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루를 정해 모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듯이 신약의 교회들도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날이 필요하게 되었다(행 20:7, 고전 16:2). 모든 일은 질서대로 하고 규모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완전한 날이 오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예배하러 모이게 될 터이다. 그래서 어떤 날에 대한 구분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나라에 살고 있으며, 아직은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여 주신 것이 첫째 날이다.<sup>46)</sup>

그럼 왜 첫째 날인 주일을 특정한 날로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다른 날보다도 예배드리기에 더욱 적합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기준에서 칼빈이 살던 제네바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던 식대로 토요일 하루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던가? 칼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참된 “안식의 목적과 성취”를 찾을 수 있으므로 이날이 예배를 위한 특별한 날로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제네바에서는 “주님의 날”에 해야 할 일의 규범을 정하여 두고 미신적으로 이 날을 막연히 보내지 않고 거룩한 성경공부와 명상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칼빈은 덧붙였다.<sup>47)</sup> 안식일 준수 정신이 계속 되었으나 신약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 규칙을 능가하는 새로운 정신이 주어졌다고 말한다. 칼빈은 복음에서 제시된(골 2:16-17, 갈 4:10-11, 롬 14:5)<sup>48)</sup>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46)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pp.212-215.

47) Ibid., pp.215-216.

48)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룩된 구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도리어 고전 16:2에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보면, 더 이상 미신적인 의미의 안식일 성수는 위험하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에 모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sup>49)</sup> 따라서 교회의 예배와 평화와 질서와 교육과 친교를 위해서 유대인이 지켜온 날은 제쳐두고(여전히 유지되고 지속되는 내적인 의미는 살아 있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리스도인은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

---

의 것이니라”(골 2:16-17).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갈 4:10-11).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찌니라”(롬 14:5).

49) *Calvin Comm. on I Cor. 16:2.*

“사도들은 안식일이 오래 전부터 지켜져 왔으므로 이를 대신해서 새로운 날로 대치시켰다. 이제 주의 날이 새로이 선택되었다. 왜냐하면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어서 율법의 그림자들이 종말을 고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날 그 자체만은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서 자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들 속에서 이미 알게 된 것은 신자들이 그들의 노동에서 벗어나서 한 특정한 날을 항상 지켜왔다는 점이다. 그들이 날마다 모일 수 없다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한 특정한 날이 지정되어서 보편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 Ⅲ.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W. Gouge의 주일관

#### A.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W. Gouge(1578-1653)에 대한 이해

1647년 팔머(Herbert Palmer)가 죽은 후에 팔머를 대신하여 구지(William Gouge)를 보좌관으로 선출하기 위한 총회가 소집되었다. 구지는 당시에 런던 목회자들의 대부로 존경을 받았고, 총회 일에 가장 활동적으로 참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런던 시에서 친절한 성품을 가진 청교도 목사로서 장수한 것으로도 널리 존경을 받았다. 할러(William Haller)에 따르면 구지는 십스(Richard Sibbes), 프레스톤(John Preston)과 더불어 바로 이전 세대에 매우 영향력 있는 런던 청교도 목회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고 한다.<sup>50)</sup>

구지는 1578년 12월 25일에 미들섹스(Middlesex)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이튼 스쿨(Eton School)을 나와서 런던에 있는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를 다녔다. 킹스 칼리지에서 1598년 문학사 학위를 받고 그해 8월 25일 특별 연구원으로 인정되었으며, 1602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자로서 구지는 킹스 칼리지에서 논리학과 철학을 강의하였고, 히브리어도 가르쳤다. 1628년에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의회에 의해서 성경의 주석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로 임명되었다. 그 주석은 때로 '영어판 주석(English Annotations)' 또는 '웨스트

---

50) 김성봉, 『주일을 기록하게』 (서울 : 도서출판 나눔과 섬김, 2003), p.10.

참고로 저자는 구지에 관하여 James Reid, *Memoirs of the Westminster Divines(Vol.1)*, Paisley, 1811, pp.343-363와 William Baker, *Puritan Profiles*, Mentor, 1996, pp.35-38을 참고할 것을 언급한다.

민스터 주석(Westminster Annotations)'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총회 기간에 의회의 명령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에 의해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구지가 맡은 부분은 열왕기상에서 에스더까지로 알려지며, 1653년 생애의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에 대한 거대한 주석이 교회에서 행한 약 천 번의 설교로 완성되기에 이른다. 그는 긴 인생을 통하여 런던의 청교도 성직자들의 지도자로 남아있다. 1626년 십스와 함께 청교도의 강사직을 후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모으기도 하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정을 대비해 그는 런던에 장로회를 설립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그는 1647년 5월 3일에 런던의 장로교회 지역 총회의 첫 모임에서 의장으로 선택되었고, 1649년에 시온 칼리지(Sion College)의 교장으로 봉사했다.<sup>51)</sup>

그가 출판한 몇 권의 저작물 중 On Domestical Duties Eight Treatses(1622년 발행, 1626년 재판, 1634년 삼판)와 A Guide to go to God ... Explanation of the Lord's Prayer(1626년 재판)이 있다. 히브리서에 대한 그의 주석(1655년)은 최근 1980년에 재인쇄 되었고, 던스톨(J. Dunstall), 장로인 패이손(W. Faithorne), 스탠트(Stent)에 의해서 새겨 만들어진 세 개의 초상화가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sup>52)</sup> 특히 1641년에 기록된 "The Sabbaths Sanctificaton(주일을 거룩하게)" 작품은 구지의 주일관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에 참여하여 영향을 끼쳤던 트위스(W. Twiss)나 워커(G. Walker)의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적이라 할 수 있다.<sup>53)</sup>

---

51) 김성봉, 『주일을 거룩하게』, pp.11-13.

52) Ibid., p.14.

53) Ibid., pp.8-9.



## B. "The Sabbaths Sanctificaton"에서 살펴본 주일성수

17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W. Gouge는 주일성수에 대한 글을 문답식으로 썼는데, 이것이 "The Sabbaths Sanctificaton"<sup>54)</sup>이란 책이다. 1641년에 기록된 이 책의 내용은 85개의 물음과 대답으로 주일성수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주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sup>55)</sup> "The Sabbaths Sanctificaton"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안식일의 도덕성의 근거(문 1-4)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들(문 5-42), 주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증거(문 43-50),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이견들(문 51-69),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동기들(문 70-85)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내용들을 좀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칼빈과 비교한 안식일의 도덕성의 근거<sup>56)</sup>

안식일은 도덕적인가, 의식적인가? 라는 물음에서 Gouge는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삶의 규칙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것이 어떻게 도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아담의 무죄성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며(창 2:2,3), 십계명이 도덕법으로서 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출 20:8).<sup>57)</sup> 이러한 면에서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은 도덕법을 말하지만 의

54) 2003년 4월 "주일을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김성봉 편역.

55) 김성봉 목사 외, 『주5일 근무제와 한국교회』, (서울 : 예루살렘, 2002), p.19.

56) The Ground of the Morality of the Sabbath(Q.1-4).

식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네바 요리문답 168문에는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엔 어떤 일도 하지 말도록 금하신다는 것인가?”라고 묻고, “이 계명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안식일 준수는 고대법의 의식들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계명은 폐지되었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너는 이 계명이 본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구약시대에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묻고는 “그것이 의식법인 한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제 제 4계명이 의식에 관한 한 폐기되었다는 것을 제네바 요리문답 181문답에서 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의 성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하냐고 했을 때,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을 통해 십자가에 못박히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롬 6:6)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sup>58)</sup> 따라서 구지는 칼빈과는 달리 의식법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 제 4계명의 안식일 준수를 도덕법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의 입장과 대립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칼빈도 의식법을 제외한 모세의 법 대부분을 도덕법으로 이해하였고,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제 4계명인 안식일 준수를 도덕법으로 해석하였고, 중생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의식적인 성격을 제외한 주일의 개념 아래서 같은 방식으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sup>59)</sup> 이와 같은 칼빈의 정신을 후대의 퓨리탄들이 잘 계승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구지는 제 4계명인 안식일에 대하여 칼빈과 대립

57) 김성봉, 『주일을 기록하게』, pp.40-41.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1-2.

58) 한인수 옮김, 『갈뱅의 요리문답』, (서울 : 도서출판 경건, 1995), pp.151-155.

59)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중홍 외 3인 공역, II.viii.1. p.525.

되는 입장이 아니고, 도덕적 기능을 더 강조하였을 뿐이다. 구지의 안식일의 도덕성의 근거에 대하여 제3문과 4문에서는 안식일의 시간의 구성을 묻고, 일주일 중의 다른 날들이 24시간으로 구성된 것과 같이 안식일도 24시간으로 구성된 것으로써 설명한다. 주께서는 제 칠일을 온전히 쉬셨기 때문에 그가 쉬는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그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게 해야 함을 창 2:3, 출 20:11을 통해서 증명한다.<sup>60)</sup> 이는 칼빈이 창 2:3, 출 20:11을 주석하는 내용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안식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구지는 더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들

W. Gouge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들<sup>61)</sup>에 대하여 성경구절들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대답해주고 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문5)” 라는 물음의 대답은 명령되어진 것들(렘 17:22), 허락되어진 것들을 준수함으로써(출 12:16)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명령된 의무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고, 그 의무들은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데 있어서 그 날을 위해 아주 적합한 것들이다. 또한 허락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

60)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3-4.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 2:3).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1).

61) *Directions for Sanctifying It*(Q.5-42).

족함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날에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였다. 명
 령되어진 의무들은 경건의 의무(눅 4:16)와 자비의 의무(막 3:4)들이 있
 으며, 경건의 일들에는 공적인 일(행 15:21), 사적인 일(행 16:13), 은밀한
 일(막 1:35)들이 있다. 경건의 공적인 의무들은 개개의 가족들이 함께 만
 나는 공적인 장소로서 교회 안에서(고전 4:17, 11:20, 22, 14:19, 28, 히
 2:12) 행해진다고 하였다.<sup>62)</sup> 그리고 “목사와 회중, 모두에 의해서 행해질
 경건의 의무는 무엇인가?(문12)” 라고 물을 때, “시편을 노래하는 것
 (Singing Psalmes, 마 26:30)”이라고 하였다.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행해졌는데, 구약의 장막, 성전, 유대인들의 회
 당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도 행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시편을 노래하셨고(마 26:30), 그것은 사도들에 의해서도
 즐겨 행해졌으며(엡 5:19, 골 3:16), 초대 교회에 의해서 행해졌다(고전
 14:15, 26). 모든 성도에 의해 즐겁게 행해졌던 이 의무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활력을 얻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영에 활력을 주
 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더욱 힘을 얻게 된다.<sup>63)</sup>

Gouge는 “영혼에 관계된 자비의 일이 무엇인가?(문18)”라고 묻고는
 간단히 7가지로 답한다.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것(고전 12:1), 약한 자를
 세우는 것(행 20:35), 의심을 풀어주는 것(눅 24:38, 39), 곤란 당한 사람
 들을 위로하는 것(요 11:31, 14:1, 고후 2:7, 살전 5:14), 오류에 빠져 있는
 자들을 바로 가르치는 것(마 22:29, 약 5:19, 20), 죄인을 책망하는 것(막
 8:33, 눅 3:19, 고후 2:6),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는 모든 일(살전 5:11, 롬
 15:2)”이다. 이러한 일들은 자비의 일로서 설명되어지는데, 그럼 “안식일
 날 자비의 일을 행하는 것과 다른 날에 자비의 일을 행하는 것 사이의

62)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5-8.

63)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12의 대답.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문22)”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이에 구지는 이렇게 답한다. “안식일에는 자비의 일을 위한 기회를 찾아야 하고 다른 날에는 자비의 일을 나타내야(고전 16:2) 한다. 그 어떤 안식일도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비의 일을 행하지 않은 채로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도록 해서 안된다. 우리가 경건의 일을 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합당하게 우리 육체를 쉬는 것으로부터 아낀 그 시간은 우리가 자비의 일을 하는데 써야만 한다. 병자나 갇힌 자나, 혹은 다른 이유로 자유가 제한된 자나,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과 곤란을 당한 자나 불쌍하거나 가난한 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절대 필수적이다”<sup>64)</sup>

Gouge는 나아가 봉사의 일이 때로 경건의 의무를 방해할지라도 안식일에 행해질 수 있겠는가?(문37) 라는 물음에 대해서 행해질 수 있다고 답한다(마 12:7).<sup>65)</sup>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신다. 호세아 6:6에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라는 구절은 때로 하나님께서는 제사, 즉 우리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경건의 외적 의무를 기대하지 않으실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구지는 덧붙였다. 그러나 그것들이 경건의 의무를 방해할지라도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반드시 절대적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사람에게 커다란 손해와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경우의 일들)으로써, 그 전 날이나 그 날 이후로 앞당기거나 미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sup>66)</sup>

64)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22의 대답.

65)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마 12:7).

66)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38-42.

더불어 경건의 의무를 방해하는 특별한 봉사의 일로는, 집에 불이 났을 때

### 3. 주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증거<sup>67)</sup>

W. Gouge는 주일이 참된 안식일인 근거를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다. 첫째는 그것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리스도 교회의 지속적인 관습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요, 넷째는 제 칠일을 요구하는 율법의 본질(실체) 때문이라고 하였다.<sup>68)</sup> 이에 네 가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 a. 신적 권위

이것은 주님의 날이 참된 안식일인 가장 중요한 근거로서, 사람의 판단과 양심을 정착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구지에 의하면 신적 권위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인데, 교훈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실제로 증거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증거 된 경우에는 성경에서 가장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간의 첫 날, 즉 주님의 날에 함께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다시금 여드레 후에(요 20:19, 26), 즉 이 경우에는 첫 날을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인데 역시 주간의 첫 날에 해당하는 날로서 이 날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행 2:1) 모였고, 성령이 그들 위에 갈라진 혀로 내려왔던 때도 역시 주간 중의 첫 날이었다. 그 때로부터 여러 해 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

---

불을 끄는 것, 댐이 터졌을 때 댐을 막는 것, 적에 항거하는 것, 당면한 위험으로 동물을 구해주는 것이 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67) Proofs that the Lords Day is the Christians Sabbath(Q.43-50).

68)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43-50.

간 중의 첫 날에 그들이 떡(성찬식의 떡을 의미)을 떼기 위하여 함께 모였으며” 바울은 그 기회를 타서 그들에게 설교 하였다고 한다(행 20:7). 그들이 함께 모이는 방식의 정착은 그들의 관습을 암시해 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것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데(고전 16:2)<sup>69)</sup>, 거기서는 사도가 그들에게 그들이 곤궁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연보하기 위하여 함께 모일 것이 아니라, 매주 주간 중의 첫 날에 지킬 일로 정해진 것이다. 왜 하필 그 날인가? 그 날이 가장 크게 모일 수 있는 날로서 서로 간에 자극을 주며 그들의 헌신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때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시간이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므로 그들의 영혼이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보다 풍성해지고 유쾌해지도록 자극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70)</sup>

구지에 의하면 주의 날이라는 명칭(계 1:10)이 이 날보다 더 잘 어울리는 날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주라는 말은 의심할 나위 없이 주 그리스도(고전 8:6)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신약에서 통상 그에게 드러진 명칭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날이 그로부터 하나의 종파가 생기게 되며, 그의 이름의 영예에 드러지게 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전에 들은 대로 이제껏 교회가 관례적으로 함께 모여온 그가 부활하신 그 날보다 더 그리스도에게 적합하게 들어맞겠는가? 라고 구지는 반문한다. 바로 이 근거에서 주간 중의 첫 날인 이 날을 ‘주의 날’ 이라고 칭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 날이 교회에 의하여 주 그리스도의 영예에로 드러졌는데, 요한 사도는 이 날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고, 성령께서는 바로 그 거룩한 날에 그 책에 언급된 천상의 계시를 그에게 보여줄

69)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전 16:2).

70) 김성봉, 『주일을 거룩하게』, pp.112-114.

기회를 가지셨다는 것이다.<sup>71)</sup>

### b. 그리스도 교회의 지속적인 관습

Gouge에 따르면 사도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주의 날에 거룩한 날로 기념해 왔는데, 바로 이 주의 날이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도 이와 같은 교회의 지속적인 관례는 중단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표현은 교회의 관례란 지켜져야 할 사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 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 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고전 11:26)”고 하였다.<sup>72)</sup>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은 이러한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고대 교회는 교회의 집회를 위하여 주 중 일정한 시간들을 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시대 이래 주일이 교회의 집회일로 확정되었으니, 이 주일은 거룩한 안식을 위한 것으로 예배와 사랑을 위하여 오늘날 까지 옳게 보존된 교회의 실천적 행습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교회가 정한 시간으로서의 주일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으며, 결코 계명으로서의 안식일 또는 주일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목적이 거룩한 안식, 예배와 사랑실천이라는 것이다.<sup>73)</sup>

### c. 그리스도의 부활

Gouge는 주일이 참된 안식일인 세 번째 근거로써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부활(고후 5:17)을 말한다. 이것은 그날을 기념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바꾸는 이유, 즉 칠일 중에서

---

71)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44의 대답.

72) Ibid., 문 45의 대답.

73) 김성봉, 「주일을 거룩하게」, p.20.



마지막을 첫날로 바꾼 이유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에 대하여서도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증거를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온전한 화해를 이루셨다는 데 대한 증거를 주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롬 4:25)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화해돼 있고, 사망과 마귀가 정복되었다면 어느 무엇이 우리의 구속과 칭의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그런고로 이러한 일은 창조를 훨씬 능가하는 일이며, 매 주마다 기억되어 마땅할 만한 일이라고 한다. Gouge에 의하면 이러한 보다 더 큰 일은 창조의 일을 삼켜버렸는데, 이것은 성전이 성막을 삼켜버린 것과도 같은 이치(왕상 8:4)라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매여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간의 첫 날을 기념하는 일에 매여 있다고 한다.<sup>74)</sup> 칼빈은 그의 이사야 주석에서 “오늘날 그 의식은 폐지되었지만, 그 진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75)</sup>

#### d. 제 칠일을 요구하는 율법의 본질

율법의 말씀은 “제 칠일은 주의 안식일이다”라고 말한다. Gouge에 따르면 율법이 처음 일곱째 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고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관계된다고

74)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46의 대답.

75) 존 칼빈, 『성경주석 8 이사야 IV』, p.245.

한다. 그 일이 보다 더 위대한 일에 의하여 포함되게 되자, 보다 위대한 그 일을 기억하는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의 본질이 지켜지게 되었다. 우리가 기념하는 일곱째 날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 한 주에 두 안식일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주도 안식일 없는 주가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안식일은 그들의 주간을 마무리짓는 날이고, 우리의 안식일은 우리의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다. 어느 날로 바뀐다 하여도 이보다 더 적합하게 바뀔 수는 없는 일이다.<sup>76)</sup>

#### 4.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견들<sup>77)</sup>

여기서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하여 안식일 계명에 반대되는 11가지 이견(문 51-61)과 안식일이 아닌 것 4가지(문 62-69)를 다루고 있다. 이 같은 진술들을 살펴볼 때 Gouge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색적인지, 그 실제적인 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sup>78)</sup> 안식일의 법에 반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도덕성<sup>79)</sup>과 공정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임의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셋째는 외적인 휴식과 의식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네 번째는 염려해서 하게 되는 일들을 합법적으로 여기는 것, 다섯 번째는 필요한 일조차도 불법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 하

76)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47의 대답.

77) *Aberrations about the Sabbath(Q.51-69)*.

78)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51-69.

79) 도덕법으로 여기는 법들은 영속성을 가진 법으로서 율법의 본질이다.

여금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일곱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일로 마음 쓰는 사람을 비웃는 일이라고 하였다. 여덟 번째로 주의 날에 부득이해서 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과 아홉 번째로 주의 날을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으로 나누는 행위이다. 또 열 번째는 거룩한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차츰 지쳐버리는 것이며, 열 한 번째는 그것을 지키는 척 하면서도 주의 날을 속되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sup>80)</sup> 한편 주의 안식일이 아닌 네 가지의 다른 안식일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대답하고 있다. 첫째는 세속적인 안식일<sup>81)</sup>, 둘째는 에피큐레스(Epicures : 에피큐레스파 사람들)의 안식일<sup>82)</sup>, 셋째는 짐승의 안식일<sup>83)</sup>, 넷째는 마귀의 안식일<sup>84)</sup>이라고 하였다.

80)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51-61의 대답.

81)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다.

82) 그 날에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다.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던 그들은 주님의 날에 그들의 일상적인 소명과 일들을 금하고, 대신 화려한 축제를 하며, 스포츠와 오락을 행할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만족할 만한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주님의 안식일이 아니고, 에피큐레스의 안식일이다.(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65의 대답.)

83) 게으름 가운데 그날을 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짐승과 같이 그들의 소명 받은 의무들(직업)을 쉬는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부름 받은 직업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그들의 침대에서 누워서 혹은 차려입은 채로 자고, 먹고 마시고, 공허한 일, 즉 그저 문가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고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또 다른 나태한 일들을 하면서 보낸다. 이것은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Ibid., 문 67의 대답.)

84) 그 날을 죄짓는 날로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육일 동안에는 일을 하느라고 외적인 악한 행위들을 억제하고 있다가 주님의 날을 모든 죄의 고삐를 풀어놓는 시간으로 만든다. 어떤 이들은 음란한 행위를 하며, 강탈하고 훔치는 날로 구별해 놓고, 술을 마신다. 이들은 악을 행하므로 마귀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Ibid., 문 69의 대답.)

## 5.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동기들<sup>85)</sup>

이제 Gouge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동기들을 13가지로 열거하고 있다.<sup>86)</sup> 첫째는 명시된 계명이다. 신 5:12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구지에 의하면 만약에 다른 계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홀로 주님이시고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권자라는 것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할 뿐이며,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87)</sup> 둘째는 그 계명 앞에 있는 덧붙여 제시된 사항이다. 출 20:8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는데, 안식일과 관계하여 명시된 계명 앞에 붙어 있는 사항은 “기억하라”는 것이다. 여러 계명들 가운데에서 “기억하라 (memento)”고 한 것은 그것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잊혀지지 않게 특별히 기억하라는 충분한 주의가 담겨 있다.<sup>88)</sup> 이어 Gouge는 “왜 제 4계명 앞에 ‘기억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가?”라고 묻고는 제 4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이렇게 표현한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Gouge는 십계명 가운데 제 4계명 외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하여 그 도덕성이 의심받아 본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만은 그 도덕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sup>89)</sup>

---

85) Motives to Sanctify the Sabbath(Q.70-85).

86)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70-85.

87) Ibid., 문 70의 대답.

88)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71의 대답.

89) Ibid., 문 74의 대답.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네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모범이다. 창 2:2과 출 20:11<sup>90)</sup>을 근거로 Gouge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고 율법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음을 밝혔다.<sup>91)</sup> 다섯 번째는 성도들의 실천이며, 여섯 번째는 의무의 공정함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다른 계명들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다. 이 동기는 제 4계명을 기억하는 이유에서도 언급하였다. 구지에 의하면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것을 듣는다든지, 토의한다든지, 묵상한다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의무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의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어떻게 그를 예배하며 그의 이름에 바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의무 안에서도 역시 지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설득되며 우리가 배운바 대로 힘써 행하도록 권유받는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눅 11:13).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준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sup>92)</sup> 여덟 번째는 안식일로 인한 영적 유익이다(렘 17:26).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신적인 율법의 의무를 준수

90)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 2:2).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1).

91)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75-76.

92) 김성봉, 「주일을 거룩하게」, pp.27-28.

함으로서 주님의 날을 정당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본성적인 타락 상태 가운데에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회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활력을 주고,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다. 따라서 율례로 정해진 주님의 날은 쇠한 것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수단이다.<sup>93)</sup> 아홉 번째는 그것이 가지는 일시적 유익이다(신 5:14). 구지에 의하면 매 주 중에서 하루를 쉬는 것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있어서 대단히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한다. 특별히 옛세 동안 힘써 일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여기서 짐승도 쉬어야 한다고 하셨는가?(출20:10)<sup>94)</sup> 여기서 짐승은 단지 일시적 유익을 얻을 뿐이기 때문이다.<sup>95)</sup>

열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동기는 그것을 지키는 데 대한 약속들이다(사 58:13, 14). 그리고 열 한 번째는 그것을 속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위협이다. 그 근거로서 출 31:14, 15, 렘 17:27, 겔 20:13, 21 말씀을 제시하였다.<sup>96)</sup> 또한 열 두 번째 동기는 그것을 어기는 데 대한

93)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80의 대답.

94)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10).

95)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81의 대답.

96)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옛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 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31:14, 15).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렘 17:27).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좃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

심판의 집행이다. 심판의 집행은 삼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심판을 받는 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감각과 고통에 의해서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대하 33:12, 13). 또 하나는 심판을 받는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 있다.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다.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무도 없거나 혹은 그 심판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행하신 심판에 의해서 알려지셨다’(시 9:16) 고 말한다. 그것에 의해서 그 분은 전능하신 분으로, 의로운 분으로,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부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지신다. 이제 심판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판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강압적인 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다.<sup>97)</sup>

마지막 열 세 번째 동기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일의 안전함이다 (행 4:19).<sup>98)</sup> Gouge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전한가? 아니면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안전한가?”라고 질문한다. 만약 우리가 꼭 준수해야하는 계명으로서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하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여전히 얽매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제 칠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구별해 놓

---

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니”(겔 20:13, 21).

97) W. Gouge, *The Sabbath Sanctification*의 문 84의 대답.

98)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

는다면(미신적인 것이 그 날을 준수하는 것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대비하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sup>99)</sup>

## C. 청교도의 주일성수 개념

### 1. 청교도의 주일관

칼빈에게 있어서 의식법을 제외한 모세의 법 대부분을 도덕법으로 이해하였고 십계명 안에 포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생된 이후에 그 법의 사용(usus legis tertius)을 열어 놓았다. 그와 같이 제 4계명 안식일 준수도 도덕법으로 해석하였고 중생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의식적인 성격을 제외한 주일의 개념아래에서 같은 방식으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청교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sup>100)</sup> 그들은 주일만 지키고 도덕법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의식법에 속한 유대절기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드 여왕 시대에 이미 주일날 백성들의 오락을 위해서 공적으로 스포츠가 허용된 이래(1583) 청교도(퓨리탄)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안식일 논쟁은 Mr. Bound가 안식일에 관한 논문에서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지켜져야 하며 그 법은 도덕적이고 영원한 법이라 하여 주일을 세속화하는 스포츠나 오락 게임들을 버릴 것을 발표하자, 대주교인 Whitgift 가 출판된 그 책들을 회수하고 더 이상 출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던 일이 있는 후에도 계속

---

99) Ibid., 문 85.

100) Cf. William Twiss, *The Christian Sabbath Vindicated*, London 1641; Thomas Shepard(1605-1649), *These Sabbaticae*.



은밀히 읽혀졌다. 그러나 이런 정신은 역사적으로 카톨릭이나 영국 국교회에 의해서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 우선 첫째로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1618년 8월 25일에 처음 법정과 주교들이 결정되어 제임스 1세의 왕명으로 출판된 퍼스의 5개 조항이 결국 목회자들에게 강요되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 5개 조항은 성례를 무릎을 꿇고 받도록 할 것, 사적으로 병자에게 성례를 집행할 의무, 필요에 따라 사적인 세례집례의 허용, 이미 세례받은 어린이들은 주교에게 데리고 가 견신례(Confirmation)와 주교의 축복을 받을 것,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령강림절, 승천절을 지킬 것 등이다. 둘째로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소위 「오락의 책(A Declaration to encourage Recreations and Sports on the Lord's Day)」을 출판하여 목회자들로 하여금 읽도록 강요한 사건들이 제임스 1세 때(1618)와 찰스 1세 때(1633)에 있었다.<sup>101)</sup> 특별히 퍼스의 5개 조항

---

101)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p.51-53.

오락에 관한 포고문서(1633년 10월 18일)의 내용에 대해서 :

1) 명목상 주일날 오락을 허용한 것은 민생복지에 목적을 두었다. 신민(臣民)들은 주일내내 심하게 일하는 천한 자들이다. 그들의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오락을 허용해야 하고 그것을 금하는 것은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된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찰스 1세의 포고는 자신의 아버지 제임스 1세의 포고를 기억하는 것이므로 그 오락을 법적인 오락(lawful recreation, lawful sports)이라 칭하였다. 그 찰스 1세의 포고는 제임스 1세의 포고문에 따른 것으로 후자의 포고문에 그 선민에게 일요일이나 다른 성일에 그 법적인 오락과 정숙한 운동(honest exercises)을 금하거나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물론 이런 포고문을 낸 것은 어떤 관구(Lancashire)에서 시발되었던 것이고 왕국전체로부터 백성의 일반적인 불평에 근거하였다. 그 오락의 내용을 보면 남녀 모두에게 허용되는 춤, 뛰고 넘는 남자의 경마 스포츠, 메이게임, 시골축제, 모리스 춤 등 다른 해없는 오락들이었다.

2) 실제로 그 포고문서의 동기는 퓨리탄 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퓨리탄운동의 확산(... is much infected)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고 다른 종교세력인 교황주의(로마 카톨릭 국교기피자들: Popish Recusants)를 견제한 것이었다.

3) 그 당시 오락과 스포츠의 금지는 주일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성일에도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왕명 포고문서는 주일성수를 반대하는 것

은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불법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계속 스코틀랜드 교회의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가 1638년 총회개혁에서 처음 그 총회의 결정을 무효화하였다. 청교도들의 순수성(non-conformity)이란 이런 주일성수와 예배의식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그 개혁주의 전통을 지키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런 오락의 책에 대한 저항정신과 퍼스의 5개 조항에 대한 거절은 모든 청교도들(장로교적인 퓨리탄들과 독립교회적인 퓨리탄들)에게 공통된 정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의 확고한 정신이었다.<sup>102)</sup>

유럽 대륙에서도 이런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물들(G.Udemanus, W.Teellinck, J.Spiljardus)이 1612년이래 강한 주일성수를 강조함으로 논쟁이 되기 시작하여 도르트 회의에서도 논쟁이 되었고, 1620년 이후 G.Udemanus, W.Teellinck와 Jacobs Burs 사이에 논쟁이 있었으며, 거기에 꼬리를 이어 1621-1627년 사이에 남홀란드(Zuid

---

이 아니었고 다만 일요일 저녁 기도후(after evening prayer), 일요일 오후 (upon the Sunday's afternoon) 혹은 모든 신적인 예배종결 후(after the ending of all divine service) 그런 오락이나 스포츠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청교도인들(Puritans)과 엄격한 이들(Precisians)은 온종일 주일성수를 강조하였다. 동시에 어떤 정숙한 오락이나 건전한 놀이(honest mirth or recreation)까지도 관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퓨리탄 정신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예배모범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4) 주일날 오락을 허용하는 법은 최고 재판권을 가진 자들인 왕과 주교가 일체하여 일어난 꺾박형태였다. 그런 퓨리탄 정신은 종교의 오용이었고 그 포고문에 의해서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종교의 오도임을 설득시키고 개혁하는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경우 법정에 넘겨졌다. 그 법적인 제재효과는 퓨리탄들이 스스로 그 법에 순응하거나 그 나라를 떠나야 하는 선택이었다.

5) 따라서 이런 법들 때문에 퓨리탄 신자들과 성직자들 사이에 이런 법에 순응하는 자들(conformist)과 순응하지 않은 자(non-conformist)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순수한 퓨리탄의 원개념은 사실 후자의 개념을 의미한다.

102)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p.41-43.

Samuel Miller, *Presbyterianism: The Truly Primitive and Apostolical Constitution of the Church of Christ*, Philosophia 1835, 66ff.

Holland)의 특별대회에서도 논쟁이 있었다. 계속하여 A. Thysius, A. Walaeus, F. Gomarus, A. Rivertus, G. Amesius 등으로 이어지는 Hoombeek, Heidanus 사이의 논쟁, Utrecht 대학, Groningen 대학내의 논쟁으로 발전하였다.<sup>103)</sup> 그러나 청교도들의 기본 입장은 카톨릭주의와 영국 국교회자들의 주일의 세속화와 재세례파, 퀘커교도, 다른 이단들의 주님의 날을 버리는 운동, 또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관용함으로 상업도시들이 세속화됨으로 주님의 날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반대하여 강한 주일성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 중 William Gouge는 행 20:7, 11절의 주석을 근거하여 24시간 주일성수를 강조하였다.<sup>104)</sup>

## 2. 청교도의 주일성수에 대한 실제적 원리

청교도들의 주일성수에 대한 실제적인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님의 날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청교도들은 우리가 주님의 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그 가치 평가를 바르게 터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주일이 ‘영혼을 위한 장날’이므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성으로 맞을 것을 강조한다. 둘째로, 공적 예배는 주일에 중심이 되어야 하며 개인 기도는 공적 예배에 대해 두 번째가 되어야 한다.<sup>105)</sup> 셋째로, 주일날

103) George Walker, *The Doctrine of the Sabbath*, Amsterdam 1638, 137.

104) 김영규, 「17세 개혁신학」, pp.43-44.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래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행 20:7,11).

105) J. I. Packer,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of Christian Life*, (Pri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94), pp.240-241.

가족은 하나의 신앙 구성 단위로 역할을 해야 한다. 가장은 가족의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양도할 수 없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가 이 책임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다.<sup>106)</sup> 이에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Westerminster Larger Catechism)의 118문은 이에 대하여 강조한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책임은 가족의 지도자들과 그 밖의 윗사람들에게 보다 더 특별하게 지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살필 의무가 있는 것이다.”<sup>107)</sup> 넷째로, 주일에 대한 율법주의와 바리새 주의는 피해야 한다. 모든 목적의 추구에는 바른 방법과 그릇된 방법이 있으므로 교사들 중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바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타인의 실수나 또는 상상의 실수를 비평하는 자칭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 주의는 모두가 복음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경고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경주했다.<sup>108)</sup> 이와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가르친 청교도들은 이러한 일들을 부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즐거운 특권으로 여겼으며 금식일이 아니라 축제일로 간주하였다. 이에 조지 스윈녹(George Swinnock) 목사는 ‘성도만큼 기쁨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고 안식일만큼 기쁨과 어울리는 날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청교도들은 주님의 날을 영적 박람회 장으로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필요한 모든 영적 양식을 충분히 비축하는 즐거운 날로 맞이하였다.<sup>109)</sup>

---

106) Ibid., pp.241-242.

107) 나용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pp.295-296.

108) J. I. Packer, Ibid., pp.241-242.

109) 서창원, “칼빈과 청교도들의 주일성수 개념”, (목회와 신학 9월호, 1994).

## IV. 결 론

지금까지 존 칼빈과 William Gouge의 주일관을 살펴보았다. 칼빈은 율법을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규범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중생된 이후에도 우리들에게 당연한 규범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을 찾았다.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이 갖는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의 제 3사용(*tertius usus legis*)으로서 어떻게 율법이 우리의 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칼빈은 율법을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 곧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율법의 제 3사용법은 사라지지 않고 천국에서 남으며 이러한 명확하고 제시된 규범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핵심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의 완벽한 귀감이 담겨 있으므로 “삶이 근거할 하나의 영원 불변한 규칙”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약시대의 한 날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폐지되었지만 안식일의 “내적인 실재(*the inward reality*)”는 여전히 신약시대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기독교 공동체 안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십계명 중 제 4계명의 이해에서 의식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기되었지만 도덕적인 법은 영구한 법으로서 우리가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주일성수의 당위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Gouge도 주일이 참된 안식일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매여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간의 첫 날을 기념하는 일에 매여 있다고 하면서 주일성수를 말해주고 있다. 이 날을 일상적인 사업과 노동에서 구별시켜 오락과 유희를 금지하고 이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이나 Gouge, 청교도들은 모두가 예배는 하루를 다 바쳐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형태든지 공적인 예배의 모범이든지 동일하게 강조되었으며, 주일에 자선을 베푸는 행위는 해야한다고 하였다.

토마스 부룩스 목사는 영국교회에 경건의 능력이 쇠퇴하고 있는 원인은 주일이 엄숙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한국 교회에 미치는 주일성수 문제에 도전이 되는 말이다. 우리는 주일성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편의주의적인 상황에 끼워 맞춰 주일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창조 때 주어진 원리임을 인식하는 것이 주일성수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날을 엄숙히 지키는 것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혹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주일을 성수하려는 자들을 바리새적이라고 몰아붙이지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은 주중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지 방종하는 자들이 아닐 것이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구별된 의식이 요구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따라서 주일은 당연히 기억되고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현대교회가 엄수하고 나아갈 때, 주 5일 근무로 인한 여유 시간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더욱 풍성히 사용하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I. 영문자료

Beza, Theodore. *Propositions and Principles of Divinity*, Edinburgh, 1591.

Calvin, John. *Sermon on Deuteronomy*, Tr. Arthur Golding, London: Henry Middleton, 1583. Facsimile Reprint,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87.

Cartwright, Thomas. *A Treatise of Christian Religion. or The Whole Bodie and Substance of Divinitie*, London, 1616.

Gouge, William. *The Sabbaths Sanctification*, London, 1641.

Miller, Samuel. *Presbyterianism: The Truely Primitive and Apostolical Constitution of the Church of Christ*, Philosophia 1835.

Packer, J. I.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of Christian Life*, Pri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94.

Walker, George. *The Doctrine of the Sabbath*, Amsterdam 1638.

### II. 국내자료

하지, A.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김종흡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윌리엄슨, G. 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 서울 :

- 개혁주의신행협회, 2001.
- \_\_\_\_\_. 『소요리문답강해』, 최덕성 역,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88.
- \_\_\_\_\_.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이길호 옮김, 서울 : 베다니, 2001.
- Gouge, William. 『주일을 기록하게』, 김성봉 역, 서울 : 나눔과 섬김, 2003.
-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서원모 옮김, 경기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존 윌리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해설서』, 민성기, 배현주 공역, 서울 :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2.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초판(1536년)』, 김종흡 역, 경기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_\_\_\_\_. 『기독교 강요 최종판』, 김종흡 외 3인 공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2.
- \_\_\_\_\_. 『칼빈의 십계명 설교』, 박희석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91.
- \_\_\_\_\_. 『聖經註釋 1 창세기 I』,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서울 : 성서원, 2003.
- \_\_\_\_\_. 『聖經註釋 2 출애굽기 I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서울 : 성서원, 2003.
- \_\_\_\_\_. 『聖經註釋 8 이사야 IV』,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서울 : 성서원, 2003.
- \_\_\_\_\_. 『聖經註釋 16 공관복음 I』,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서울 : 성서원, 2003.



- \_\_\_\_\_. 「칼뱅의 예레미야 설교」, 박건택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_\_\_\_\_. 「칼뱅의 요리문답」, 한인수 옮김, 서울 : 도서출판 경건, 1995.
- 토마스 레쉬만.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정장복 역, 서울 :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2.
- 김성봉 목사 외. 「주5일 근무제와 한국교회」, 서울 : 예루살렘, 2002.
-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재, 2002.
- \_\_\_\_\_.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 하나, 1998.
- 김홍전. 「예수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참뜻」, 서울 : 성약출판사, 2002.
- 나용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박용기. 「그리스도인의 주일성수」, 서울 : 예루살렘, 1996.
-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 영음사, 1999.
- 이상원. 「21세기 십계명여행」, 서울 : 토기장이, 2000.
- 이형기. 「세계개혁교회 신앙고백서」,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최낙재. 「영원한 안식과 주일」, 경기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_\_\_\_\_. 「소요리문답강해②」, 경기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Ⅲ. 학위논문 및 기타 자료

- 고광택. “주일성수에 대한 성경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1.
- 김영규, “William Twiss의 안식일 논쟁”,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1997.
- 김현웅.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성경적 고찰” 신학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 류호영. “주5일제와 노동과 쉼에 대한 신학적 고찰(1)”, 「목회와 신학 11월호」 2002.
- \_\_\_\_\_. “주5일제와 노동과 쉼에 대한 신학적 고찰(2)”, 「목회와 신학 12월호」 2002.
- 리차드 보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의 날”, 「목회와 신학 3월호」 2001.
- 박영금. “주일성수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 서창원. “칼빈과 청교도들의 주일성수 개념”, 「목회와 신학 9월호」 1994.
- 유해무. “화란교회가 주는 주일성수의 교훈”, 「목회와 신학 3월호」 2001.
- 툼슨성경 편찬위원회. 『툼슨성경 주제별 성경사전』, 서울 : 기독지혜사, 1989.